

고대영어의 /h/-탈락에 관한 연구: 운율형판이론과 최적성이론의 적용결과를 비교함*

이세창
(숙명여자대학교)

Lee, Sechang. 2009. A study of the Old English /h/-deletion: comparison between a prosodic template approach and an optimality-theoretic one.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5.3. 485-497.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n account of how the deletion of Old English /h/ is adequately explained given the assumption that the phenomenon is a result of constraint interactions. I make a critical review of Kim(2005) where prosodic template is adopted for the purpose of delimiting a scope, out of which the /h/ is deleted. This provides an elegant analysis of the /h/-deletion, though not an entirely unproblematic one. Clearly, the best aspect of his analysis is that it makes use of independently motivated prosodic template which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seemingly complex /h/-deletion. On the other hand, this analysis also raises certain conceptual problems. I propose an alternative treatment of the /h/-deletion which overcomes those problems while preserving the advantages of adopting prosodic template in the analysis of the phenomenon. I claim that the template is no longer needed in the framework of Optimality Theory in the sense of McCarthy and Prince(1993, 1995) and all the patterns of /h/-deletion can be nicely explained by the interactions of a small number of independently motivated universal constrai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eywords: prosodic template, Old English /h/-deletion, compound, alignment, phonotactics, resyllabification, semantic reduction

1. 서론

고대영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h/-탈락 현상은 다양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Wright and Wright(1925)과 Campbell(1959)은 /h/-탈락이 일어나는 음성적 환경들을 자세히 명시하여 줌으로써 기술적 타당성을 제공해 주는데 기여하였다. 그 이후 Lass and Anderson(1975)과 Keyser(1975), Kiparsky and O'Neil(1976), Peinovich(1979) 등이 규칙중심의 단선적 음운이론방식의 틀 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Suzuki(1994, 1995)는 비단선적 구도 내에서 분석을 제안하였다. Moon(2001)과 Yang(2002)은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Prince and Smolensky 1993; McCarthy and Prince 1993, 1995, 이후 OT로 칭함)의 구도 내에서 /h/-탈락을 분석하였다. 최근 Kim(2005)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h/-탈락의 분석에 McCarthy and Prince(1986)가 제안한 운율형판(prosodic templat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에 해당하는 Kim의 분석방식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과 이론적 한계성을 지적한 후 이들을 극복할 수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9 학년도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h/의 탈락양상

고대영어의 /h/는 그것이 표면에 나타나는 분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자음들과 구분된다. 대체로 /h/는 다음에 제시된 (1)과 같은 4가지의 환경하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 /h/-탈락 (Wright and Wright(1925: 171-172); Kim(2005: 430)에서 재인용함)

- a. 모음과 후행하는 유음(liquid) 또는 비음(nasal) 사이에서
 ēorod < *eohrād ‘troop’
 þwēal ‘washing, bath’ (Goth. þwahl)
 hēanes ‘height’ beside hēah ‘high’
 nēawest ‘nearness’ beside nēah ‘near’
 wōne beside nom. wōh ‘perverse, bad, masc.acc.sing.’
- b. 유음과 후행하는 모음 사이에서
 ēoles ‘elk, sing.gen.’ beside eolh ‘elk’
 fēores ‘life.sing.gen.’ beside feorh ‘life’
 hōles ‘hole, sing.gen.’ beside holh ‘hole’
 wēales ‘foreigner, sing.gen.’ beside wealh ‘foreigner’
 fēolan ‘penetrate, hide’ (Goth. filhan)
- c. 모음 사이에서
 flēan ‘to flay’ < *fleahan
 sēon ‘to strain (OHG sīhan)’ < *sehan
 slēan ‘to slay’ (Goth. slahan)
 flēon ‘to flee’ (OHG fliohan)
 tēar ‘tear (OHG slēha)’
- d. 공명자음 사이에서
 furlang ‘furlong’ < furh ‘furrow’ + lang ‘long’
 wælrēow ~ wælnrēow ‘fierce, cruel’
 earmrēad > *earmhrēad ‘armlet’

/h/가 탈락하게 되는 음성적 전후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음과 유음, 비음, 공명자음 등이 /h/에 인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견 공명음 사이에서 /h/가 탈락하는 것으로 음운론적 환경을 쉽게 특징 지을 수 있다.

이번에는 /h/의 탈락이 저지되는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2) /h/-탈락의 저지 (Wright and Wright(1925: 169-170); Campbell(1959: 187); Kim(2005: 432)에서 재인용함)

- a. 어두(word-initial position)에서
 hūs ‘house’, habben ‘to have’, hamor ‘hammer’, hēafod ‘head’,
 heard ‘hard’, heorte ‘heart’, hīeran ‘to hear’
- b. 어말(word-final position)에서

hēah ‘high’, nēah ‘neah’, seah ‘he saw’, þurh ‘through’, feoh ‘cattle, property’, rūh ‘rough’, scōh ‘shoe’, eolh ‘elk’

c. 무성자음 앞에서

brōhte ‘he brought’, dohtor ‘daughter’, eahta ‘eight’, cniht ‘boy’, feohtan ‘to fight’, hleahtor ‘laughter’, lēoht ‘a light’

d. 겹음화(gemination)에서

crohha ‘crock’, heneahhe ‘sufficiently’, pohha ‘pocket’, tiohhian ‘to think, consider’

e. 어근초(root-initial) 강세 받은 음절에서

behindan ‘behind’, behealdan ‘hold’, gehelpan ‘help’, toheald ‘leaning’, tohrēosan ‘fall’, tohweorfan ‘separate’

/h/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5 개의 환경이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여러 환경들을 통합하여 공통점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외견상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다음의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합성어의 경우에는 (1)에서와 동일한 환경에 처한 /h/가 탈락하지 않는다.

(3) 합성어와 /h/-탈락의 저지 (Kim(2005: 431)에서 재인용함)

a. 모음 사이에서

hēah-ealdor ‘a chieft ruler’ nēah-ēaland ‘a neighboring island’
hēah-engel ‘an archangel’

b. 유음과 후행하는 모음 사이에서

þurh-etan ‘to eat through’ þurh-irnan ‘to run through’
dur-here ‘folding door’

c. 모음과 후행하는 유음(liquid) 또는 비음(nasal) 사이에서

hēah-rodor ‘the loft sky’ nēah-munt ‘a neighboring mountain’
nēah-west ‘a piece of water that is near’

d. 공명자음 사이에서

þurh-lēoran ‘to pass through’ þurh-ræsan ‘to run through’
furh-wudu ‘a fir-tree’

결국 (1)과 (3)에서 드러나는 /h/의 상반된 음운론적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여기에 (2)의 현상은 어떠한 연유에서 유발된 것인지에 관한 설명까지를 통합하여 단순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것이 본고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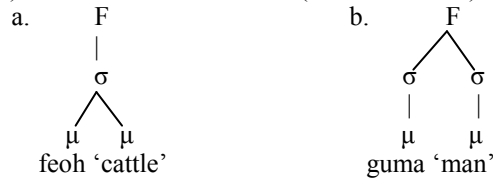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h/-탈락의 유형들을 설명한 가장 최근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Kim(2005)의 주요한 주장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Kim의 분석방식이 지닌 통찰력과 이론적 장점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문제의 현상이 OT의 이론적 틀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으

며 어떠한 이론적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3.1 선행연구: Kim(2005)의 /h/-탈락 분석

Kim의 설명방식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h/-탈락의 분석에 운율형판의 개념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고대영어에는 2개의 모라(mora)를 갖는 다음과 같은 형판이 어간에 부과되며 여기에 접사첨가 혹은 합성어 형성과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4) 고대영어의 운율형판 (Kim 2005: 425)



운율형판에 기초한 Kim의 분석내용은 다음의 (5)에 제시된 3가지 경우로 요약될 수 있다.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

(5) 운율형판과 /h/-탈락

- a. /h/가 운율형판의 내부에 속할 경우
gehelpan 'to help'
 help > [help] (Template Construction) > ge+[help]+an (Affixation)
- b. /h/가 운율형판의 외부에 속할 경우1 (어근 + 접사)
fleahan > flēan 'to flay'
 fleah > [fleah] (TC) > [fleah]+an (A) >
 [flea]han (resyllabification) > [flea]an (/h/-deletion) >
 [flēa]an (lengthening) > flēan (later changes)
- c. /h/가 운율형판의 외부에 속할 경우2 (합성어)
furh-wudu 'a fir-tree'

	furh	wudu
TC	[furh]	[wudu]
Comp	[furh]+[wudu]	
Resyllabification	[fur][hwudu]	

(5a)는 어간 /help/에 접두사 /ge/와 접미사 /an/이 결합한 결과이다. 어간 [help]를 운율형판으로 설정하면 [h]가 형판의 내부에 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h]가 탈락하지 않는다. (5b)에서는 운율형판에 포함된 [fleah]에 접미사 /an/이 결합하였다. 재음절화의 결과로 어근의 마지막 자음 /h/가 후행하는 음절의 두음이 되므로 표면형에서 [h]가 운율형판의 외부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의 [h]는 탈락하게 된다. 결국 (5a)와 (5b)의 대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h]가 운율형판의 내부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탈락여부를 결

정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Kim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5c)는 합성어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인 두 개의 어근 각각에 대하여 운율형판을 설정하였다. 재음절화의 결과로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를 구성하는 첫 번째 음절의 두음으로 나타난 [h]는 역시 운율형판의 내부에 소속되므로 탈락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성어에서는 /h/-탈락이 가변적으로 발생하는 예를 (6)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6)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h/-탈락의 변이 (Kim 2005: 437)

īfig < **īfig* < **if-hīeg* ‘ivy’

a. before semantic reduction

if > [*if*] (TC)

> [*if*]+[*hīeg*] (Comp and no /h/-deletion)

hīeg > [*hīeg*] (TC)

b. after semantic reduction

ifhīeg > [*if*]*hīeg* (TC) > [*if*]*īeg* (/h/-deletion) >

[*ī*]*fīeg* (resyllabification and lengthening) >

[*ī*]*fig* (later changes)

(6a)에서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if*]와 [*hīeg*]가 각기 운율형판을 구성하므로 형판의 내부에 소속된 [h]는 탈락하지 않는다. 반면에 ‘의미론적 축약’(semantic reduction)을 겪은 (6b)의 경우에는 정의상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가 운율형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¹. 이렇게 되면 재음절화에 의하여 음절두음에 속하게 되는 [h]는 첫 번째 형판을 벗어나게 되므로 더 이상 형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 Kim의 설명이다.

운율형판의 설정에 기초한 Kim의 이러한 주장은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단순화된 이론적 기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기술해 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이론적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h/의 탈락여부는 전적으로 운율형판의 설정에 달려있다. 그러면 왜 형판의 내부에서는 /h/가 유지되며 형판을 벗어나면 왜 탈락하는지에 관한 근본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h/가 탈락하면 이것을 OT에서는 충실성제약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음운론적으로 상위에 있는 어떠한 유표성제약의 충족을 위한 것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즉, /h/-탈락의 결과가 음운론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설명이 확보되지 않은 한 /h/-탈락과 운율형판의 설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순환적인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6a, b)의 경우에 의미론적 축약을 어떠한 근거에서 음절형판의 지위상실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¹ ‘의미론적 축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16)번 평가표의 분석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둘째, 일본어에서는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에 속하는 첫 번째 저해음이 유성음화되는 소위 *Rendaku* 현상²이 발생한다 (Ito and Mester 1986: 71-72). 이것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내부에서도 동시적 언어변화가 아닌 공시적 음운현상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어의 합성어 형성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음화 현상의 경우에도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의 첫 번째 자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로부터도 동일한 일반화를 얻을 수 있다³. 따라서 (5c)에서와 같이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를 운율형판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내부적으로는 /h/-탈락과 같은 음운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Kim의 가정은 언어보편적으로 지나치게 강한 주장에 해당하므로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

셋째, Kim의 분석에서는 운율형판의 설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Kim의 형판은 고대영어에 국한된 언어특유의 자의적인 성격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Pince and Smolensky(1993)와 McCarthy and Prince(1993)로 대표되는 표준 OT 이후의 음운이론에서는 운율형판 자체를 모든 언어가 갖추고 있는 보편적인 제약의 하나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언어특유의 운율형판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OT의 기본 정신을 문법의 간결화와 효율성에 기여하는 음운이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채택하고자 한다.

3.2 보편제약의 설정과 상호작용에 의한 /h/-탈락 분석

앞서 고려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상의 /h/-탈락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무표적인 보편제약들을 찾아내어 문법에 설정하고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이 본고의 기본 입장이다. 우선, 다음 소절에서는 본고의 분석에서 사용될 주요 제약들을 살펴본 후 그 다음 소절에서 고대영어의 /h/-탈락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자.

3.2.1 보편제약의 설정

일반적으로 음절화 과정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자음군을 만나게 되면 음절두음이 최대화되도록 음절화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그리고 이 때에 생성될 수 있는 음절두음의 자음군은 공명도에 있어서 음절핵을 향하여 상승하는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⁴.

² ori kami	→ ori+gami	'paper folding'
oo sumoo	→ oo+zumoo	'grand sumo tournament'
yama tera	→ yama+dera	'mountain temple'
mizu tepoo	→ mizu+depoo	'water pistol'

³ /보름+달/ → [보름달], /잠+자리/ → [잠자리]

/산+길/ → [산길], /봄+비/ → [봄비]

⁴ 이러한 주장은 음절핵이 공명도의 정점을 이루며 음절의 주변(즉, 두음 또는 말음)으로 향할수록 공명도가 낮아진다는 '공명도이론'(Ladefoged 2006: 239-240)에 근거하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원리를 다음의 (7)과 같은 형태의 제약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7) MAXONS

Maximize sonority-rising onset (cluster).

음절두음의 최대화는 해당 언어의 음소배열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특유의 현상이 (7)과 같은 보편제약의 설정으로 해결되는 효과를 본고의 분석에서 얻을 수 있다.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있어서 자질들의 분포는 음절내의 위치별로 비대칭성을 띠게 된다 (Steriade 1982; Itô 1986, 1989; Goldsmith 1989, 1990; Lombardi 1991 등). 특히, 음절의 두음은 말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유효적인 분절음을 허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운과정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촉발자의 역할을 담당한다⁵.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음절두음이 위치동화의 촉발자가 된다는 일반적인 경향에 근거하여 음절두음은 위치자질(place feature)을 보유하는 것이 무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현상의 이러한 무표적인 경향을 다음과 같은 보편제약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8) ONS(place)

Assign one violation mark for every syllable whose onset does not dominate a place feature.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분절음 /h/는 구강 내에서 특정한 조음 위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자음들과는 특징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출력형의 음절두음에 나타나는 [h]는 (8)에 의하여 별점을 부여 받게 된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두 종류의 충실성제약을 채택하고자 한다. (9)는 위치에 관계없이 분절음의 탈락에 대하여 별점을 부여한다.

(9) MAX-IO(segment)

Assign one violation mark for every segment whose input segment does not have the output correspondent.

어근초에 위치한 음절은 그 밖의 위치에 나타나는 음절들에 비하여 음운론적으로 보다 유효적인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 (Beckman 1997).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본고에서 제안하는 보편제약 (10)은 어근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입력형과 출력형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⁵ 언어보편적으로 위치동화현상에 있어서도 음절두음이 전형적인 촉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역행동화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0) ROOT-INITIAL FAITHFULNESS

Assign one violation mark for every root-initial output segment that is not faithful to the input correspondent.

끝으로, 합성어는 2 개 이상의 단어 혹은 어근형태소(root morpheme)가 결합하여 생성되는데 이 때에 어근의 좌우 경계는 음절의 좌우 경계와 일치하는 것이 무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포착한 McCarthy and Prince(1993)의 (11)번 제약을 원용하여 본고의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11) 정렬제약 (McCarthy and Prince 1993: 36)

a. ALIGN-LEFT

$$[_{\text{root}} = \sigma[$$

(Every initial root-edge matches to an initial syllable edge.)

b. ALIGN-RIGHT

$$]_{\text{root}} =]_{\sigma}$$

(Every final root-edge matches to a final syllable edge.)

이상에서 제시한 제약들은 그 적용에 있어서 모두 특정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OT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보편제약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보편제약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고대영어 /h/-탈락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해 낼 수 있을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3.2.2 /h/-탈락 분석

본 소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제약들이 구성하는 하나의 서열에 의하여 문법이 /h/-탈락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예로서 /h/가 탈락하지 않는 경우인 (12)번 평가표를 고려해 보도록 하자.

(12) /ge+[help]_{root}+an/ → [gehelpan] ‘to help’

/ge+[help] _{root} +an/	RIF	MAXONS	ONS(pl)	MAX(seg)	ALIGN ⁶
a. ge[<u>h</u> el]p _{root} an			*		*
b. ge[h]el]p _{root} an		*!			**
c. ge[el]p _{root} an	*!			*	*

([]: 어근 경계, |: 음절경계)

⁶ 본고의 평가표에서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렬제약 ALIGN-LEFT와 ALIGN-RIGHT를 하나의 제약 ALIGN으로 묶어서 표현하고자 한다. 양자를 모두 위반하면 두 개의 벌점을 받고 어느 하나만을 위반하면 한 개의 벌점을 받는 것으로 표기한다.

입력형에서 어근 [help]에 접두사 /ge/와 접미사 /an/이 결합하고 있다. (12c)에서는 어근초에 위치해야 할 /h/가 출력형에서 탈락하였으므로 MAX-IO(segment)를 위반함은 물론 최상위제약인 ROOTS-INITIAL FAITHFULNESS 까지도 위반하게 되어 가장 먼저 경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12c)는 어근말의 [p]가 후행하는 음절의 두음으로 음절화되므로 ALIGN-RIGHT 을 위반하게 되어 한 개의 별점을 받고 있다. (12a)와 (12b)는 입력형에 주어진 어근초의 /h/가 출력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ROOTS-INITIAL FAITHFULNESS 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12b)는 출력형의 [h]가 후행하는 모음과 결합하여 음절두음을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는 음절의 말음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MAXONS 로부터 별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h]가 위치자질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절두음으로 올바르게 음절화된 (12a)가 최적형으로 판정된다.

이번에는 마지막 자음이 /h/로 끝나는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 /an/과 결합했을 때에 발생하는 현상을 (13)에서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13) /flehah]_{root}+an/ → [flēan] ‘to flay’

/flehah] _{root} +an/	RIF	MAXONS	ONS(pl)	MAX(seg)	ALIGN
a. [flehah] _{root} an		*!			
b. [flea h] _{root} an			*!		*
c. [flea] _{root} an ∅				*	

입력형에 충실한 (13a)는 어근말 자음 [h]를 후행하는 음절의 두음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ALIGN-R 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h]가 음절말음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MAXONS 으로부터 별점을 받게 됨으로써 제일 먼저 경쟁에서 패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13b)는 [h]를 음절두음에 편입시킴으로써 MAXONS 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음절두음은 위치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ONS(pl)을 위반하게 되어 (13c)와의 경쟁에서 패하게 된다. (13c)는 입력형의 /h/를 출력형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상위에 위치한 세 개의 제약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이제 합성어의 경우에는 왜 /h/의 탈락이 저지되는지 (14)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14) [furh]_{root}+[wudu]_{root} → [furhwudu] ‘a fir-tree’

/[furh] _{rt} +[wudu] _{rt} /	RIF	MAXONS	ONS(pl)	MAX(seg)	ALIGN
a. [furh] _{rt} [wudu] _{rt}		*!			
b. [fur] _{rt} [wudu] _{rt}		*!		*	
c. [fʊr] _{rt} [wudu] _{rt}				*!	**
d. [fur h] _{rt} [wudu] _{rt} ∅					**

입력형에 주어진 합성어 형성과정에서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고 있다. (14)번 평가표에 제시된 네 개의 주요 후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입력형의 어근초 분절음을 출력형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h]만으로 구성된 음절두음은 없으므로 모두 RIF와 ONS(pl)을 충족시키고 있다.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가 갖는 첫 번째 음절의 두음을 공명도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도록 하자. (14a, b)의 경우, 음절두음을 각각 [hw]와 [rw]로 확대하여도 공명도의 상승을 요구하는 제약인 MAXONS을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절두음을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한 개씩의 벌점을 받고 있다⁷. (14c, d)는 ALIGN-L와 ALIGN-R의 위반이라는 희생을 대가로 음절두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14c)는 하나의 분절은 [h]를 탈락시켰으므로 MAX-IO(segment)를 위반하게 되어 (14d)와의 경쟁에서 패하게 된다.

입력형에서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여 출력형에서 합성어를 형성하게 되는 (15)번의 경우에는 /h/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15) /if]_{root}+h̄ieg]_{root}/ → [ifh̄ieg] ‘ivy’

/if] _{root} +h̄ieg] _{root} /	RIF	MAXONS	ONS(pl)	MAX(seg)	ALIGN
a. [if] _{root} +h̄ieg] _{root} ∞			*		
b. [i]f] _{root} +h̄ieg] _{root}		*!			**
c. [if] _{root} +h̄ieg] _{root}	*!	*		*	
d. [if] _{root} +h̄ieg] _{root}		*!			**

(15c)는 두 번째 어근의 /h/를 출력형에서 탈락시켰고 첫 번째 어근의 음절말 [f]를 후행음절의 두음으로 편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RIF와 MAXONS을 모두 위반하게 된다. (15b)의 경우에는 음절초 자음군인 [fh]가 마찰음의 연쇄이므로 공명도의 상승을 이루지 못하여 MAXONS으로부터 벌점을 받게 된다. (15d)는 음절두음으로서 가능한 [h]를 두음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MAXONS을 위반하게 된다. 결국, 앞서 제시한 (14)번 평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h]가 탈락하지 않은 (15a)가 최적형으로 선정된다.

마지막으로, 의미론적 축약에 의하여 합성어가 본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음운론적 변이를 유발하게 된 예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⁸.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15)와 동일한

⁷ [j] 또는 [w]와 같은 이동음들은 본래의 조음위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음이 시작되면 이웃하는 모음의 조음위치로 곧바로 미끌어져 간다. 이러한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본고의 분석에서는 이동음은 분절음으로서 음절두음의 개수에는 포함되지만 독자적인 공명도는 지니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에 임하고자 한다.

⁸ 합성어란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를 가리킨다. 즉, 합성어는 [[root]+[root]]_{word}의 내부구조를 갖는다. Lowe(1972: 228)에 의하면 의미론적 축약이란 합성어의 이러한 내부구조가 파괴되는 현상으로서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가 어근의 지위를 상실하고 접사로 바뀌거나 선행하는 어근의 일부분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음성형태의 약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론적 축약을 겪은 합성어는 더 이상 합성어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다. Kim(2005: 437-438)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에 대하여 의미론적 축약이 발생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h/-탈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Kim의 분석에서는 합성어가 겪게 되는 의미론적 축약을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가 운율형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합성어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면 입력형에서부터 합성어의 경계가 이미 삭제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직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분석에 사용한 제약서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의 축약이 발생한 경우까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16)번 평가표를 고려해 보도록 하자.

(16) / $[i\bar{h}\bar{n}eg]_{root}/ \rightarrow [i\bar{f}ieg]_{root}$

/[i $\bar{h}\bar{n}eg$] _{root} /	RIF	MAXONS	ONS(pl)	MAX(seg)	ALIGN
a. [i $\bar{h}\bar{n}eg$] _{root}		*!			
b. [i $\bar{f}\bar{h}ieg$] _{root}		*!			
c. [i $\bar{f}ieg$] _{root} \hookrightarrow				*	
d. [i $\bar{h}\bar{n}eg$] _{root}			*!	*	
e. [i $\bar{f}\bar{h}ieg$] _{root}			*!		

본고의 분석에서는 Lowe(1972)와 Kim의 주장에 근거하여 의미론적 축약이란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어근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표시가 파괴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5)번 평가표와 비교하면 (16)에서는 입력형에서 합성어의 경계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가 한 개의 어근을 형성하고 있다. (16a)는 [h]를 음절두음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MAXONS을 위반하게 된다. 두 개의 마찰음을 모두 음절두음으로 처리한 (16b) 역시 공명도가 상승하는 형상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자체적으로는 위치자질을 보유하지 못한 [h]를 음절두음으로 확보한 (16d, e)는 음절두음에게 위치자질의 보유를 요구하는 ONS(pl)로부터 벌점을 받게 된다. 결국, [h]를 탈락시키고 위치자질을 보유한 [f]를 음절두음으로 처리한 (16c)가 실재의 출력형으로 판정된다.

4. 요약 및 결론

고대영어의 /h/가 탈락하는 전후의 분절음적 환경을 살펴보면 관련된 인접 분절음들이 모두 공명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음운론적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을 갖는 또 다른 많은 자료에서는 /h/가 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현상을 전적으로 음운론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만 설명하고자 하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설명을 위하여 복잡한 이론적 기제를 동원하여야 하므로 언어이론에서 추구하여 온 간결성과 경제

의미론적 축약을 합성어의 두 번째 요소가 어근의 지위를 상실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분석에 임하고자 한다.

성의 원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h/-탈락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운율형판의 도입을 제안한 Kim의 분석은 진일보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h/의 탈락을 운율형판의 설정과 연결시킨 그의 분석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연구들에 비하여 문제의 현상을 보다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채택한 OT의 문법구도에서는 언어특유의 운율형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보편제약들의 상호작용으로 /h/-탈락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였다. 특히, OT에서 한 언어를 구성하는 하나의 제약서열 내에는 음운론적 보편제약들과 형태론적 보편제약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Kim의 분석에서처럼 더 이상 음운론적 현상과 형태론적 현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본고의 분석에서는 언어변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h/-탈락의 변이까지도 동일한 하나의 제약서열상에서 배열된 제약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으로 설명해 낼 수 있었던 것도 문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수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REFERENCES

- BECKMAN, JILL N. 1997. Positional faithfulness, positional neutralization and Shona height harmony. *Phonology* 14.1, 1-46.
- CAMPBELL, ALISTAIR. 1959. *Old English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 GOLDSMITH, JOHN. 1989. Licensing, inalterability, and harmonic rule application. In *CLS* 25, ed. Caroline Wiltshire et al., 145-156.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GOLDSMITH, JOHN. 1990.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Oxford: Blackwell.
- ITÔ, JUNKO. 1986. *Syllable Theory in Prosodic Phonology*. Ph.D. dissertation, UMASS.
- ITÔ, JUNKO. 1989. A prosodic theory of epenthesi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7, 217-259.
- ITÔ, JUNKO and ARMIN MESTER. 1986. The phonology of voicing in Japanese, *Linguistic Inquiry* 17, 49-73.
- KEYSER, SAMUEL. 1975. Metathesis and Old English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6, 377-411.
- KIM, YOUKANG. 2005. /h/-Deletion in Old English: A prosodic template approach.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1.3. 431-442. The Phonology-Morphology Circle of Korea.
- KIPARSKY, P. and W. O'NEIL. 1976. The phonology of Old English inflections, *Linguistic Inquiry* 7, 527-557.
- LADEFOGED, PETER. 2006. *A Course in Phonetics*. Boston: Thomson Higher Education.

- LASS, ROGER and JOHN M. ANDERSON. 1975. *Old English Ph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MBARDI, LINDA. 1991. *Laryngeal features and Laryngeal Neutralization*. Ph.D. dissertation, UMASS.
- LOWE, PARDEE. 1972. Germanic word formation. Prosodic Features in Proto-Germanic. In Coetsem, Frans van and H. L. Kufner (eds.). *Toward a Grammar of Proto-Germanic*, 99-116.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86. Prosodic Morphology.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and Brandeis University.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Linguistics depart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Rutgers Optimality Archive 60. <http://www.rutgers.edu/>.
- MOON, ANNA. 2001. The evolution of the back fricatives in the history of English. *The History of English* 12, 143-160. The English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 PEINOVICH, M. P. 1979. *Old English Noun Morphology*. North-Holland: Amsterdam.
-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STERIADE, DONCA. 1982. *Greek Prosodies and the Nature of Syllabification*. Ph.D. dissertation, MIT.
- SUZUKI, SEIICHI. 1994. Breaking, ambisyllabicity, and the sonority hierarchy in Old English. *Diachronica* 11, 65-93.
- SUZUKI, SEIICHI. 1995. Resolution and mora counting in Old English. *American Journal of Germanic Linguistics and Literatures* 7, 1-28.
- WRIGHT, JOSEPH and ELIZABETH M. WRIGHT. 1925. *Old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YANG, SEON-KI. 2002. An optimality-theoretic analysis of h-Deletion in Old English. *The History of English* 13, 91-115. The English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Sechang Lee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3-12 Chungpa-dong 2-ka, Yongsan-ku
Seoul 140-742, Korea
Email: sechangl@sm.ac.kr

received: July 10, 2009
accepted: December 10, 2009